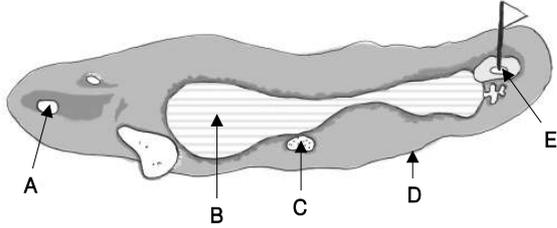


6. 골프장을 보고 '삶의 태도'에 대하여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소	착안점	연상한 내용
① A- 경기를 처음 시작하는 곳 : 티그라운드	홀의 위치를 확인하고 방향, 거리 등을 감안하여 경기 운영을 설계한다.	목표를 분명히 한 후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② B- 티그라운드와 홀 사이의 잔디 구역 : 페어웨이	다른 구역보다 공을 치기에 유리한 곳이므로, 이곳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③ C- 모래 웅덩이 : 벙커	공을 쳐내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므로 공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살다 보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한다.
④ D- 경기구역 경계선	경기 구역을 벗어 나면 벌점을 받게 되어 불리해진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내해야 한다.
⑤ E- 경기의 목표지점 : 홀	홀 안에 공을 넣어야 경기가 끝난다.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7.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오늘 뒷산에 다녀왔다. 오랜만에 가는 산이기에 마음이 무척 ㉠ 설레었다. 전에 산에 오를 때에는 약수터에 있는 참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며 많은 생각을 하곤 했다. 약수터에 도착해 보니, 울여름 ㉡/ 무성했던 참나무가 옷을 벗은 채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의연하게 서 있었다. ㉢ 하얗게 눈이 쌓인 산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나무를 보니 많은 ㉣ 생각을 했다. 그동안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 적이 있던가.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던가.

㉤ 그리고 새해에는 나도 한 그루 나무처럼 살아야겠다. 자신의 자리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가끔은 누군가 기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걸모습은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 ① ㉠은 맞춤법이 잘못되었으므로 '설렷다'로 고쳐야겠어.
- ② ㉡에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잎이'를 추가해야겠어.
- ③ ㉢은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은 앞부분과 호응이 되도록 '생각이 들었다'로 고쳐야겠어.
- ⑤ ㉤은 앞 문단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물론'으로 바꿔야겠어.

8. <보기>와 같이 '판소리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 수정 및 구체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I. 서론

1. 판소리의 우수성 ㉠
2. 판소리를 세계적인 예술로 만들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

II. 본론

1. 판소리 세계화의 의의
 - 가. 국가 이미지의 제고
 - 나. 전문 소리꾼의 부족 ㉡
 - 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
2. 판소리 세계화의 걸림돌
 - 가. 외국인인 판소리를 쉽게 접하기 힘든 상황
 - 나. 판소리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부족
 - 다. 판소리 공연 내용을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움
 - 라. 판소리와 창극이 분리된 현실 ㉢
3. 판소리 세계화를 위한 방안
 - 가. 판소리 전용소극장 설치로 공연의 활성화 ㉣
 - 나. 판소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의 수립
 - 다. [] ㉤
 - 라. 전문 소리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

I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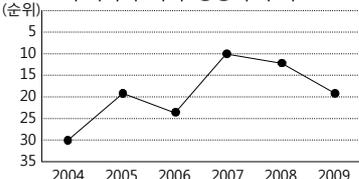
: 판소리의 세계화에 대한 전망과 제언

- ① ㉠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판소리는 유네스코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정도로 매우 훌륭한 예술임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 ②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II-2'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한다.
- ③ ㉢은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삭제한다.
- ④ ㉣은 'II-2-가'를 고려하여, '판소리에 대한 외국인의 거부감 완화책 마련'으로 수정한다.
- ⑤ ㉤에는 'II-2-다'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익숙한 소재의 발굴 및 영문 자막 설치'라는 내용을 삽입한다.

9. '삶의 질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신문 보도 내용
 유엔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서 우리나라가 4년째 세계 26위를 기록했다. 국가별 삶의 질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순위가 26위라는 것은 국내총생산 규모와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것에 비해 초라한 성적이다. - ○○일보 -

(나) 통계 자료

1.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추이 (순위)


2. 각종 지표 순위

항목	세계 순위
여가경쟁력	23위/65개국
국민행복지수	68위/143개국

(2009년)

* 국가경쟁력 : 경제력 중심의 국가 평가
 * 여가경쟁력, 국민행복지수 : 삶의 질 중심의 국가 평가

(다) 설문 자료

부정 평가 ▼	삶의 질 관련 평가	▲ 긍정 평가
73.6%	치안	26.4%
61.0%	여가 향유 환경	39.0%
76.7%	의료 서비스 환경	23.3%
85.3%	세금 대비 복지 수준	14.7%

- (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음을 지적하고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야겠어.
- (가)와 (다)를 활용하여 삶의 질이 경제 외적인 측면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야겠어.
- (나)를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이 높다고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겠어.
- (나)-2와 (다)를 활용하여 여가 활용을 위한 여건 마련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제시해야겠어.
- (다)를 활용하여 치안이나 복지 분야의 만족도가 낮음을 제시하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해야겠어.

10. <보기>를 본 학생이 작성한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알립니다.
 학생회에서는 학교 축제에 사용할 대형 걸개그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걸개그림의 내용은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즐거운 축제를 이루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걸개그림에 어울리는 문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구를 통한 운율감이 드러나면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 문구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너와 나 우리 되는 세상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
- 함께 뿌린 씨가 열매로 익은
우리들의 소중한 꿈
- 여기저기 웃음꽃이 만발하는
우리들의 젊음의 향연
- 모두가 참가하는 학교 축제
모두가 화합하는 학교 축제
- 작은 개울이 모여 만드는 큰 강물
작은 열정이 모여 만드는 큰 환희

11. <보기>의 ㉠~㉣에 들어갈 낱말들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점]

— <보 기> —

약속은 시간과 장소가 정확해야 한다. 새내기 영업 사원 시절의 일이다. 계약 문제로 고객을 만나기 위해, 많은 차량으로 (㉠)한 회사 부근을 간신히 빠져나와 약속 장소로 갔다. 그러나 고객은 그곳에 없었다. 급히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 보니,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큰 실수였다. 약속 장소를 (㉡)하여 고객을 기다리게 한 것이다. 약속을 정할 때 전에 만났던 곳에서 만나자는 말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런 (㉢)이 빚어졌던 것이다.

- | | | | |
|---|--------|--------|--------|
| | ㉠ | ㉡ | ㉢ |
| ① | 혼잡(混雜) | 혼란(混亂) | 혼돈(混沌) |
| ② | 혼란(混亂) | 혼돈(混沌) | 혼선(混線) |
| ③ | 혼잡(混雜) | 혼동(混同) | 혼선(混線) |
| ④ | 혼잡(混雜) | 혼선(混線) | 혼동(混同) |
| ⑤ | 혼란(混亂) | 혼돈(混沌) | 혼동(混同) |

12. <보기>의 ㉠의 경우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 <보 기> —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사동(使動)이라고 하며, 사동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된다.

(가)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히셨다.
 (나)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셨다.

(가)에서는 '입다'에 접미사 '-히-'를 결합하여 사동을 실현하였으며, (나)에서는 '-게 하다'를 덧붙여 사동을 실현하였다. 그런데 (가)와 (나)는 의미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가)는 딸이 스스로 입을 수 없어서 어머니가 직접 입혀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딸이 자신의 힘으로 색동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후자의 뜻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 다정이는 찬물을 유리잔마다 가득 채웠다.
-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먹이려고 상을 차리셨다.
- 아버지는 진수에게 동생을 업히고 앞서 걸으셨다.
- 그녀는 이번 발표회를 위해 경미에게 발레화를 사서 신겼다.
- 정원은 집에 초대할 친구들에게 졸업 앨범을 보여 주었다.

[13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 열자 섯똥!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부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워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움짖 아니 기턴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좁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 우수절(雨水節) : 24절기의 하나. 입춘(立春)과 경칩 사이
- * 이마받이 : 이마를 부딪치는 것
- * 웅송거리고 : 몸을 움츠러들고
- * 햇웃 : 숨을 두어 지은 웃

(나)

새는
자기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가 남긴 체중이 잠시 흔들릴 뿐

새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의 투영이 없다.
새가 날아간 공기 속에도
새의 동체가 통과한 기척이 없다.

과거가 없는 탓일까
새는 냄새나는
자기의 체취도 없다.
울어도 눈물 한 방울 없고
영영 빈 몸으로 빈털터리로 빈 몸뚱아리 하나로
그러나 막강한 풍속을 거슬러 갈 줄 안다.
생후(生後)의 거센 ㉡ **바람** 속으로
갈망하며 꿈꾸는 눈으로
바람 속 내일의 숲을 꿰뚫어본다.

- 황지우, 「출가하는 새」 -

(다)

매화는 요염이오 해당화는 신선이라
지란은 춘향이오 지기를 만나온 듯

㉢ **한죽(寒竹)**은 주락하여* 군자를 대하온 듯
벽오동 젖은 잎에 머리 붉은 봉황이 깃들이고
창창한 늙은 술에 백학이 춤을 추고

행화는 나뭇거리 술잔에 가득하고
접시꽃 담홍하여 날빛을 기울이고
㉣ **버들은** 실이 되고 **피꼬리는 북***이 되어
연류간* 왕래하여 흐르는 소리 이어지니
흐르는 빗소리에 티끌 꿈 깨이거다.

청려장 둘러 짚고 앞뒤에 올라가니
잔디마다 속잎이요 포기마다 꽃이로다.

꽃 꺾어 손에 들고 물 먹어 양치하니
㉤ **청향이** 입에 가득하고 화기가 옷에 묻는다.

유수를 따라가서 바위 위에 앉았으니

㉥ **공산이** 적막한데 **접동새** 슬피 울고
산화는 난만한데 벌나비 쌀쌀하다.

청산을 흰 구름은 부용같이 피어가서
선인을 찾아와서 곳곳이 따라오고

현포*의 맑은 안개 띠같이 둘러 있어
㉦ **신선은** 날만 여겨 곳곳이 쫓아온다.

- 작자 미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주락하여 : 마음이 상쾌하고 정신이 깨끗하여

* 북 : 베틀에서 낱실 사이로 씨실을 푸는 기구

* 연류간(烟柳間) : 안개가 끼인 버드나무 사이

* 현포(玄圃) : 선경과 같이 좋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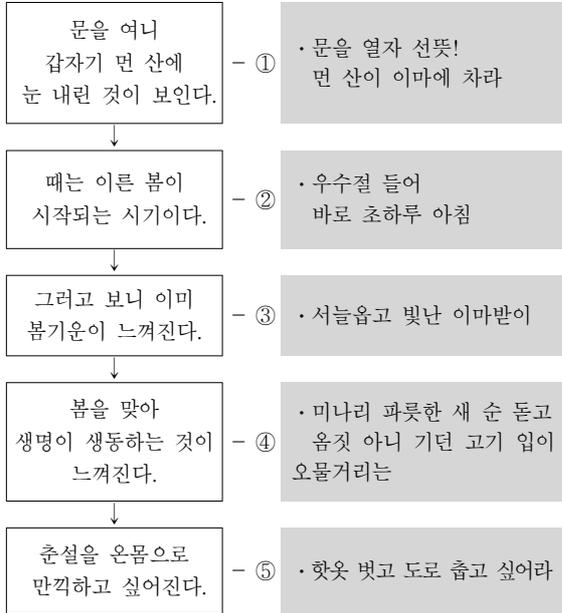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시선이 이동하는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다)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14. (가)와 (다)에 드러난 자연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으로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 ② 화자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된다.
- ③ 화자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
- ④ 이상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 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15. (가)의 내용 흐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때, 근거가 되는 시어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6. (나)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행의 서술어에 주목했어.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를 반복하여 새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시상 전개 방식에 주목했어. 새의 외면을 응시하다가 새의 내면을 응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듯해.
- ③ 제목에 주목했어. 제목에 사용된 '출가'와 '새'는 이 시의 주제 의식과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야.
- ④ 수사법에 주목했어. '채취'에서 시작하여 '체중'과 '자리', 그리고 '채취'로 시적 대상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아.
- ⑤ 화자의 태도에 주목했어. 시적 화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새의 모습에 투영한다고 할 수 있어.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나무를 군자의 덕목을 지닌 존재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 ② ㉡는 늘어진 버들가지 사이로 새가 나는 모습을 베를 짜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 ③ ㉢는 온몸으로 봄의 운치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산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흥겨운 심정을 감정 이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는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자신이 신선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8.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엄숙한 작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 ③ ㉠은 일상적 의미, ㉡은 상징적 의미가 주로 드러난다.
- ④ ㉠은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 ㉡은 화자와 동화된 존재이다.
- ⑤ ㉠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은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복설 : (부엌을 향하여) 어머니.
처 : (무언)
복설 : (조심스러이) 어머니.
처 : (㉠ 말없이 솔뚜껑을 열어보고 다시 바다만 바라본다.)
복설 : (하늘을 쳐다보고 혼잣말로) 날이 좀 갠라나? (다시 모(母)를 보고 좀 크게) 어머니.
처 : 이년아 숨넘어가지 않는다. 왜 귀찮게 자꾸 부르니 부르길. 오래잖아 닭 울 텐데 까라는 조개나 깔 것이지.
복설 : (통명한 모의 말에 어이가 없어) 아이 참 거 대답 좀 하시면 어떻수.
처 : 말하기도 귀찮아.
복설 : 너머 역정만 내지 마요. 아버지께서도 술만 잡숫고 밤낮으로 트집만 잡으시는데 어머니마저 그러시면.
처 : ㉡ 또 한 척 들어왔나 본테.
복설 : 아까 소나무 선창에 댔다가 물결이 세니까 이쪽으로 다시 대는 거 아녜요?
처 : 그 옆에 칠성기 단 배 말이다.
복설 : 나무 못 미쳐 관들네 배여요. 허—연 형겁으로 붉은 돛을 누덕누덕 긴 걸 보면 모르세요?
처 : (불평이 찬 말로) 너는 추녀 끝에 웅배기 좀 못 치겠니? 고 빛방울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으면 오장육보가 바싹바싹 오구라드는 것 같다.

(중략)

복설 : 어머니도 너머 역정 내지 마세요. 한숨에 땅이 폭 꺼질 것 같수. (뒤란으로 나간다. ㉢ 먼 마을 개 짖는 소리 '멍~'하고 뒷산에 울려온다. 파도 소리 점점 커진다.)
처 : (불길한 예감에 놀라 부엌에서 뛰어나오며 눈을 휩뜨고) 그 날이 꼭 오늘이야. 그날이 오늘이야.
복설 : (뒤란에서 쫓아 나와 매달리며) 어머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석이가 불쌍치 않으세요. 이 비 쏟는 춘 밤에 조개 잡어가지고 오다가도 어머니 이러시는 것만 보면 애가 타서 하는데.

처 :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무언)
복실 : 죽은 제가 쏠 테니 제발 들어가 주무세요. 네?
석이 : (㉠ 쪽지계에 조개를 잡아 지고 개펄투성이로 들어온다.)
 어머니, 날이 어떻게도 쌀쌀한지 개펄 속에서 정갱이가 그 대로 뻗뻗이 굳겠어.
복실 : 아이 가엾어라. 춥겠구나.
석이 :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또 한바탕 쏟아 질라나 봐. 여드레 밤낮을 쏟아왔으면 고만이지, 지긋지긋이도. (부엌 앞에다 지계를 내려놓으며) 어머니 어젯 밤은 좀 주무셨수?
복실 : 밤새 개[浦]*를 울고 헤매셨단다.
처 : (만— 일을 쫓는 듯이) 큰아이 죽든 날도 꼭 가을 꼭두 새벽 이맘때야. 그날도 청송맞게 황동개가 짓었지. 아마.
석이 : (금시 풀이 죽으며) 여드레 밤을 꼬박 울고 새셨으면 고만이지 어젯밤도 개를 헤매셨다니 하루이틀 아니고 참말이지 어찌 살겠소?
복실 : 큰오빠 죽은 뒤로는 바람만 불어도 갈매기만 안 울어도 작은 오빠 죽었다고 물가를 외치고 단기시니.
[가] **처** : (석이와 복실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느 아버지는 토담 앞에서 그물을 뜨고 복실이는 지금 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개를 까고 나는 부엌에서 복조가 먹고 갈 시래기죽을 쑤고 있을 때야.
석이 : 집이라고 터덜거리고 들어와야 웃는 낮이 하나도 없으니 당최 맥이 풀려.
처 : 시커먼 그 무슨 이상한 생각이 번개같이 휩 머리를 지나갈래 부엌문을 튀어나왔드니.
석이 : (울음 섞인 말로 모의 말을 막고) 그때 수사경찰서 순사하고 쇠뿌리 사공이 잔물에 퐁퐁 얼은 큰성 바지 저고리를 들고 들은 얘기는 안 해도 다— 알아요.
복실 : 어머니 이것이 어디 우리만 당하는 일이에요. 지난 일을 끄집어내서 우시고 우시고 하시면 산허구리*에 고기잡어 먹고 살 사람 있겠어요?
석이 : 남이라 살라구.
처 : 하나님도 설마 복조마져야 안 잡아가지겠지. 그러나 같이 나갔던 배들 한 척 두 척 벌써 다— 들었는데 아직도 열두 척만 꿩 귀 먹은 소식이니 벌써 물귀신 다 됐을거야. 지금쯤은 몸뚱이 벌써 죄다 파 먹고 바지저고리만 어느 바위틈에 켜을 거다.
복실 : 어머니 무슨 악바친 소리를 그리 하슈. 빈말이라도 부모 말이 등에서 안 떨어진다는데.
석이 : 아버지 술 잡술 적마다 큰누나더러 못산다 못산다 하시더니 시집간 후 지금껏 고생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작은성이 그렇게 됐다면 그래 좋겠어요?
처 : 차라리 죽었다면 잠이나 한잠 식-식 자지.
복실 : ㉡ 이번 풍량은 대단치도 않다는데.
처 : 분이아범(큰사위)도 내 딸을 시퍼런 과부를 만들어 놓고 물에서 죽었지. 내가 전생에 죄가 많어 그래. 느 아버지 상어 이빨에 윈다리 몽땅 꿰어지든 날도.
석이 : 글썄 제발. (울면서 말을 구른다.)
 - 함세덕, 「산허구리」 -

* 개[浦] :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물가, 바닷가.
 * 산허구리 : 산등성이의 잘록하게 들어간 곳. 여기서는 동네가 위치한 곳.

19. 위 글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을 역전시켜 사건이 전개되고 있군.
 - ②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가 초점화되고 있군.
 - ③ 사건 진행에 따라 인물이 처한 상황이 상세화되고 있군.
 - ④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군.
 - ⑤ 시간적 배경이 구체화되어 사건이 역사적 의미로 연결되고 있군.

20. 위 글을 통해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석이'가 어머니에게 반발하는 이유는 불길한 말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 ② '복실'은 무능력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 ③ 아버지가 식구들을 박대하는 이유는 불구가 된 몸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 ④ 큰사위와 큰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어머니는 자신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 ⑤ '석이'는 큰형의 죽음이 확인된 날의 상황을 근거로 '복조'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1. [가]에서 '처' 대사의 특징과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상을 것을 경험한 사실처럼 말해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다른 인물의 말에 엉뚱한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긴장된 분위기를 이완시키고 있다.
 - ③ 연결되는 일을 시간차를 두고 말하여 상대방의 궁금증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 ④ 다른 인물과 소통하지 않고 혼잣말하듯이 말하여 자신의 의식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다른 인물의 말을 연속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2. ㉠~㉡에 대해 연출자가 할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연기자는 궁핍한 삶으로 인한 고뇌와 좌절이 표정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연기해야 합니다.
 - ② ㉡ : 연기자는 자식의 소식을 궁금해 하는 어머니의 조바심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 ③ ㉠ : 음향 담당자는 '개 짓는 소리'가 '처'가 느끼는 예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④ ㉡ : 소품 담당자는 개펄에서 고생한 모습이 의상을 통해 관객에게 역력히 보이도록 준비해 주세요.
 - ⑤ ㉡ : 연기자는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는 의도가 대사를 통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23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개인들은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려 하며, 시장은 이를 포착하여 알맞은 상품을 제공한다. 생명보험, 암보험 등의 각종 보험 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민간 보험 상품만으로 개인들이 위험에 완전히 대처했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을 현재의 욕구를 위한 소비와 미래의 욕구를 위한 저축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의 욕구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과대평가하는 본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 행운의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불행의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불합리한 존재이다. 그래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해 버리는 개인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대비책이 없어 무너지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국가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 제도가 사회보험이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인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강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자신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본인의 총액소득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정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 지급액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소득자에게는 사회보험이 민간 보험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또 같은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료도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보험에서 고소득자는 상대적 손실을 입게 되고 저소득자는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강제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시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을 고용보험에 적용해 보면 타당성이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의 보험 상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 위험이 암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업은 외환 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업이 증가할수록 나의 실업 확률도 커지는 상호 의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들은 고용보험상품을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또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역시 국가가 추구하는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에 맡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그 장치로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민간 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이 성립된다.
- ② 사회보험은 국민들에게 균일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보험이다.
- ③ 사람들이 불행의 확률을 과소평가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 ④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 ⑤ 사람들은 노후생활자금 부족,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24.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다른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10년 동안 다니던 S씨의 회사도 역시 부도가 났다. 이후 일용직 근로자가 되어 과도한 육체적 노동에 시달리던 S씨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몸이 완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S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다.

- ① S씨의 실직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사회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S씨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③ S씨와 같은 실직자를 위해서 민간 보험회사는 고용보험상품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 ④ S씨의 실업은 상호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S씨가 병원 치료 이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마련한 사회 안전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5.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뉴스를 보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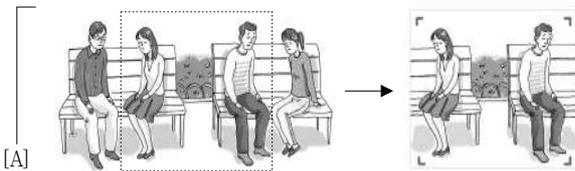
국민연금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당 △△△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체납 금액이 사업장의 경우 1억 원, 지역 가입자는 천만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 ○○○ 뉴스 -

- ① <보기>의 법이 적용될 대상자는 저소득자들은 아니군.
- ② 국가가 체납자들에게 가입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 하는군.
- ③ 국가가 민간 보험에 가입한 고소득자를 사회보험으로 유도하고 있군.
- ④ <보기>의 상습 체납자는 사회보험 제도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셈이군.
- ⑤ <보기>의 상습 체납자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연대 의식이 부족하겠군.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은 회화처럼 화가가 붓을 들고 종이를 메워 나가거나, 조각처럼 정과 망치를 들고 돌을 깎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카메라를 포함한 기계적 장치와 사진가의 선택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 찰나의 순간에 기록된 이미지에는 사진을 사진답게 만드는 사진만의 특성이 담겨 있다. 사진은 어느 화가의 작품보다도 높은 해상력을 가지며, 어떤 장르의 예술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사실적으로 현실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에서 사진이 과연 예술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제작 과정에서 기계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과 작가가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예술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다음 그림을 보자.



이 그림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 카메라는 렌즈 앞에 존재하는 것만을 프레임 안에 담기 때문에 사진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사진 이미지는 세상의 이미지들 중에서 사진가의 눈을 통하여 선택된 일부인 것이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사진가의 눈이 중요하다. 카메라는 앞에 있는 대상의 의미에 대하여 침묵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가가 대상을 알지 못하면 볼 수도 찍을 수도 없다. 대상을 선정하여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사진가는 대상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진가에게 필요한 첫 번째 눈 ㉠ '관찰의 눈'이다.

세상의 수많은 사진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누군가의 삶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가의 눈에 비친 그 존재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 위에서 변화하고 있다. 사진가는 변화하는 대상의 존재감 혹은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사진을 통하여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진가가 갖출 두 번째 눈 ㉡ '존재의 눈'이다.

사진가가 갖추어야 할 세 번째 눈은 ㉢ '시간의 눈'이다. 사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 사진은 카메라의 작동에 따라 물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순간적으로 기록된다. 이 순간성이 이 사진의 첫 번째 시간인 물리적인 시간이다. 그러나 기록되는 순간, 대상은 흐르는 시간에서 튀어나와 현재가 되고 영원성을 지닌다. 사진가가 선택한 결정적 순간이 곧 정신적 순간이고, 이 순간을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시간의 눈'이다.

사진가가 갖추어야 할 네 번째 눈은 ㉣ '소통의 눈'이다. 사진은 시각언어이다. 사진은 현실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드러낸다. 사물을 찍은 사진은 대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상황을 재현한다. 대상이 무엇인지 곧바로 인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진은 세상과의 소통이다. 좋은 눈을 가진 사진가는 사진을 매개로 한 소통을 쉽게 이끌어 내며 사진의 사실감을 넘어서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26.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 ① 좋은 사진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진기이다.
- ② 사진의 이미지 제작 방식은 회화의 방식을 본 뜬 것이다.
- ③ 사진은 순간의 기록이므로 시간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 ④ 사진가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사진은 사진가의 눈에 비친 세상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27. 위 [A]를 바탕으로 사진의 성격을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인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필름은 악보이고, 인화는 연주이다. - E. 에덤스
- ② 사진은 모든 것을 보여 주지 않는다. - P. 퍼키스
- ③ 사진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포즈이다. - R. 바르트
- ④ 의미는 없다. 오로지 사물만이 존재할 뿐이다. - W. C. 윌리엄스
- ⑤ 내일의 문맹자는 사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 M. 레이

28. <보기 2>는 위 글의 ㉠~㉣의 관점에 맞춰 <보기 1>을 평가한 것이다. 관점과 평가 내용의 연결이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1>

- 권용호, 「삼대독자」 -

<보기 2>

관점	평가 내용
㉠	쉽게 볼 수 있는 대상의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좋은 사진이다.가
㉡	할머니의 손이 손자의 몸에 닿는 순간을 잘 포착한 사진이다.나
㉢	할머니와 손자를 선택하여 흐르는 시간 속의 삶의 의미를 잘 보여 주는 사진이다.다
㉣	할머니가 손자를 쓰다듬는 모습에서 따뜻한 감정을 전해주는 사진이다.라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 ④ 나, 다 ⑤ 다, 라

[29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재 의학계에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제는 노화와 암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세포의 노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DNA의 양끝 부분인 텔로미어를 주목했고, 텔로미어를 만드는 효소인 텔로머라아제의 기능을 응용하면 노화와 암에 대한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텔로미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DNA의 구조와 복제 과정을 알아야 한다. DNA는 긴 사슬의 형태로 이어져 있는 핵산들의 가닥 2개가 나선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핵산들에는 각각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 같은 염기가 하나씩 들어 있다. 한쪽 가닥의 아데닌이 있는 핵산은 다른 가닥의 티민이 있는 핵산과, 구아닌이 있는 핵산은 시토신이 있는 핵산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데, 이들 염기의 배열 순서가 유전 정보다.

DNA가 복제될 때는 나선 구조의 한쪽 끝이 열리면서 두 가닥이 서로 벌어진다. DNA를 합성하는 효소들은 벌어진 두 가닥을 지나가면서 배열된 염기 순서에 맞춰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핵산으로 새로운 DNA 사슬을 짠다. 문제는 DNA 사슬을 복제할 때 끝부분의 핵산이 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제 효소는 복제 대상인 핵산을 지나서 다음 핵산에 도달할 때 지나온 핵산을 복제한다. 따라서 끝에 있는 핵산은 다음 핵산이 없으므로 효소가 지나갈 수 없고, 따라서 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복제가 될 때마다 DNA 사슬 끝부분의 핵산이 사라지고, 사라지는 부분에 있는 유전 정보들은 손실된다.

DNA는 진화를 거치면서 양끝에 유전 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 짧은 길이의 사슬을 붙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짧은 사슬이 바로 텔로미어(telomere)다. 생물은 각 종마다 텔로미어의 염기서열과 길이가 서로 다르다. 사람 염색체에 있는 텔로미어는 염기서열 TAGGG가 반복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텔로미어가 유전 정보가 들어 있는 사슬 부분에 덧붙여 있으면 복제 효소가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텔로미어도 세포분열(DNA 복제)이 반복될수록 그 길이가 짧아진다. 텔로미어가 해도 마지막 핵산이 복제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세포분열의 횟수는 조직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그 횟수는 텔로미어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텔로미어가 어느 정도의 길이(노화점) 이하로 짧아지면 노화 현상이 생기고 결국 세포가 죽는다.

하지만 모든 세포에서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암 세포의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해도 줄어들지 않는다. 즉 분열 횟수가 증가해도 노화 현상이 생기지 않고, 무제한으로 증식한다. 이런 현상은 텔로미어를 만드는 효소인 텔로머라아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텔로머라아제는 텔로미어를 합성한 뒤 DNA 끝에 붙여서 텔로미어 전체의 길이를 늘린다. 이 효소는 모든 세포에 있지만, 정상인의 경우 대부분의 일반 세포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난자를 만드는 전구세포와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 같은, 세포분열이 활발해야 하는 일부 세포에서만 활성화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텔로머라아제의 기능 조절 방법을 밝혀, 텔로미어를 짧아지게 하거나 짧아지지 않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자는 암 치료와, 후자는 노화 방지와 관련이 있다. 암세포 정복과 장수(長壽)의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9.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텔로미어란 무엇인가
- DNA 구조의 규명을 중심으로
- ② DNA 관련 질병 치료의 신기원
- 텔로미어의 효율적 생성 기술을 중심으로
- ③ 노화와 암 치료의 열쇠
-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아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 ④ 수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아제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 ⑤ 텔로미어는 DNA의 수호자
- 유전 정보 보존을 위한 방법 마련을 중심으로

30. <보기>의 진술 중에서 텔로미어에 대한 것을 바르게 짚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DNA의 일부분이다.
 ㄴ. DNA의 길이를 늘린다.
 ㄷ. 유전 정보의 손실을 예방한다.
 ㄹ. 세포분열의 횟수를 늘려 준다.
 ㅁ. 세포분열이 거듭될수록 길이가 짧아진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31. 위 글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가 <보기>의 영화를 제작했다고 할 때, 영화 속 상황을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늙은 상태로 태어나 아기가 돼 죽음을 맞는다는 상상력으로 관심을 모았다.

검버섯이 핀 피부, 안경 없이는 볼 수 없는 나쁜 시력. 1918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난 아이(벤자민 버튼)는 외모가 노인 같았다. 벤자민의 괴상한 외모에 놀란 아버지는 ‘노인 아이’를 한 양로원 앞에 버린다. 그의 나이 12살. 해가 지날수록 자신이 젊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때쯤 벤자민은 할머니를 찾으러 양로원에 온 6살 꼬마 테이지를 만난다. 만나고 헤어지기를 수차례. 벤자민과 테이지는 마침내 함께하게 되지만 그는 날마다 어려워지고 테이지는 늙어만 간다.

- ① ‘테이지’의 할머니는 전구세포들의 텔로머라아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야겠지.
- ② 작가는 일반 세포 속 텔로미어가 길어지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젊어진다고 설정한 것으로 보여.
- ③ 성인이 된 ‘테이지’의 일반 세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염색체의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졌을 거야.
- ④ 6살 꼬마 ‘테이지’의 경우 일반 세포 속 텔로미어의 길이는 당시 ‘벤자민’의 경우보다 짧다고 봐야 해.
- ⑤ 태어난 직후의 ‘벤자민’은 세포의 텔로미어 길이가 노화점 부근에 머물러 있었다고 가정한 것으로 보여.

[32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승상이 배를 타고 황하로 들어가니, 백이해 승상 오심을 듣고 마중 나와 맞아 영중(營中)에 들어가 국가사(國家事) 가이없음을 아뢰거늘, 승상이 탄식 왈,

“내 이리 옴은 폐제를 회복코져 하여 남방 각진을 돌아 운남(雲南)으로 왔으니, 그대도 아무날 배를 출발하여 운남 절도사 신사덕과 합세하라.”

하시니, 백이해 허락하거늘, 승상 왈,

[A] “이리이리하라.”

하고 떠나려 하니, 백이해 왈,

“승상이 이제 어디로 행하시나이까.”

답 왈,

“나는 황토에 들어가 폐제를 뵈옵고 날을 기다려 떠나려 하노라.”

백이해 왈,

“육로(陸路)로 가시면 길이 험악하오니, 수로(水路)로 가시게 하옵소서.”

하고, 사공에 분부하여 빠른 배를 선창에 대라 하고 승상을 모시고 선창에 나아가니 동남풍이 일어나거늘, 백이해 왈,

“승상의 충성을 하늘이 알아서 때 없는 동남풍이 부오니, 폐제를 수이 뵈오리다.”

하직하고 돌아와 각처 배들을 단단히 경계하더라.

승상이 배를 타고 삼일 만에 황토에 득달하니, 사공이 여쭙고 되,

“수로(水路) 사천 리를 삼 일만에 득달하오니 가장 괴이하여 이다.”

승상이 속으로 크게 기뻐 사공을 보내고 폐제의 유배된 곳에 들어가니, 가시로 성을 쌓고 있는지라. 승상이 관을 벗고 사립문 밖에 엎디어 통곡하니, 폐제 들으시고 크게 놀라 신하를 보내어 물으시니 아뢰되,

“전(前) 승상 장경이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폐제 내달아 승상을 붙들고 통곡하시니, 승상이 위로 왈,

“폐하 이렇듯 하심은 다 신의 죄오니, 무슨 면목으로 뵈오리까마는 죄를 무릅쓰고 명령을 기다리오니, 폐하는 옥류(玉淚)를 거두소서.”

폐제 울음을 그치시고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 왈,

[B] “내 덕이 밝지 못하여 그대를 귀양 보내고 이 옥을 당하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리오. 경은 안심하라.”

하시고, 처소에 들어가 건성(建成)이 모반하던 말씀을 이르며 물은즉, 승상이 도망한다 하매 다행하여 혹 찾아올까 고대하던 말씀을 차례로 하시니, 승상 또한 악명(惡名)을 씻지 못하고 천명을 기다리더니, 한 꿈을 얻어 도주하여 청운산 승당(僧堂)에 가 애첩 초운을 만나던 말과 남방 각진을 두루 돌아 약속한 말씀을 차례로 아뢰니라.

(중략)

승상이 폐제를 모시고 남성문에 올라 청룡기(靑龍旗)를 두르니, 좌선봉 양철이 십만 정병을 거느리고 동성문을 쳐 백이해를 맞아들이고 백호기(白虎旗)를 두르니 우선봉 신담이 팔만 정병을 거느려 서성문을 쳐 유지엄을 맞아들이니, 삼대진(三大陣)이 합세하여 궁성을 둘러싸고 치니 대장 추통이 군병 대세를 당치 못하여 죽도록 막더니, 선봉장 양철이 말을 몰아 추통과 접전하여 이십여 합에 승부를 결단치

못하더니, 총독장 마맹덕이 말 위에서 보다가 크게 소리고 달려들어 일합에 추통의 머리를 베어 선봉 깃대에 달고 좌중우돌하니, 건성이 추통의 죽음을 보고 크게 놀라 신하들을 거느리고 북문으로 달아나거늘, 승상이 북을 울리며 기를 돌려 좌우 군병을 재촉하여 급히 따르니, 건성이 후군(後軍) 급함을 보고 유성장 한원과 도총독 배옹으로 뒤를 막으라 하고 단더니, 선봉장 양철이 군사를 재촉하여 쫓아가며 후군을 치니 한원 등이 선봉을 막거늘, 양철이 달려들어 한원을 베고 우선봉 신담은 배옹을 베고 급히 쳐들어가니, 건성군이 힘이 다하매, 중서랑 추원에게 명하여 옥새를 봉하여 드리거늘, 양철이 마상에서 칼 끝에 받아 들고 크게 외쳐 왈,

“반적 건성은 하늘로 오르며 땅으로 들다. 어디로 가리오.”

하며 칼을 빼어 들고 달려들거늘, 승상이 급히 말려 왈,

“건성의 죄는 죽음직하나 선제(先帝)의 혈육이라. 양원수는 진정하라.”

하시니, 양철이 건성의 용포(龍袍)와 금관(金冠)을 벗기고 따르던 신하들을 다 결박하여 앞에 세우고 폐제를 모시고 이날 환궁하사 승전고를 울리며 황극전(皇極殿)에 나와 앉으시니, 제장 군졸이 만세를 부르며 역모에 가담한 신하들을 차례로 항복받아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비군을 잡아내어 능지처참하고 건성의 황비(皇妃)를 백파강 가에 내치니, 건성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천수산에 들어가 주러 죽으리라. 승상이 폐제를 받들어 종사에 나아가, 다시 천자사직(天子社稷)을 받드신 후에 천하가 태평하더라.

이적에 폐제 섬기던 신하들이 산중에 숨었더니, 기벌을 들고 모두 들어와 천자를 섬기느니라.

[C] 승상이 남북방 군사를 위로하여 보낸 후에 천자께서 큰 연회를 벌여 잔치하실새, 상이 친히 잔을 들어 승상께 전하시고 명령 왈,

“짐이 경등(卿等)으로 더불어 오늘날 즐겁은 다 승상의 덕이라. 어찌 그 은혜를 모르리오.”

하시고, 이날 장경을 연왕으로 봉하시고 곧 유지를 내리우시니, 승상이 사은(謝恩)하시고 돌아오니 연국(燕國) 신하들이 잇달아 위의를(威儀)를 차려 왔느니라.

- 작자 미상, 「장경전」 -

32 위 글의 내용을 한자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경이 황토로 찾아간 것은 유배된 폐제에게 면중복배(面從腹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② 장경이 폐제를 위해 군사를 모은 것은 신하로서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③ 폐제와 장경이 건성에게 대적하여 군사를 일으킨 것은 권토중래(捲土重來)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④ 폐제가 장경을 붙들고 통곡한 것은 폐제의 절치부심(切齒腐心)했던 마음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폐제가 복위되고 건성이 쫓겨나는 것이 장경의 입장에서는 사필귀정(事必歸正)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33. [A] ~ [C]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의 계획은 [B]의 대화 내용에 포함된다.
- ② [B]의 '폐제'는 [A]의 대화를 이미 알고 있다.
- ③ [B]의 인물 관계는 [C]에서 극적으로 역전된다.
- ④ [C]는 [A]를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 ⑤ [B]의 대화에 담긴 거짓은 [C]에서 반어적으로 폭로된다.

34. [가]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의 빠른 진행을 통해 장면의 긴박감을 전달하고 있어.
- ②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통해 중심인물을 부각시키고 있어.
- ③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어.
- ④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어.
- ⑤ 다양한 일화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드러내고 있어.

35. 위 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유충렬전」의 주요 장면

- 유심과 부인 장씨는 치성을 드리고 아들 충렬을 얻는다.
- 정한담, 최일귀 등이 유심을 모함하여 귀양 보내고 그의 가족마저 살해하려 하나, 천우신조로 충렬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 충렬의 장인 강희주는 정한담을 규탄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고, 충렬은 백룡사의 노승을 만나 무술과 병법을 배운다.
- 남적과 북적이 명나라에 쳐들어오자, 정한담은 합세하여 천자를 공격한다.
- 충렬은 홀로 반란군을 제압하여 황실 가족을 구출하고 정한담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잡혀간 아버지 유심과 장인 강희주를 구한다.
- 충렬은 이별하였던 부모와 아내를 다시 만나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 ①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을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② 어려움에 처한 황제를 돕는 이상적인 충신의 역할이 드러난다.
- ③ 대립적 인물군의 갈등과 해소 과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일반 백성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상층 지배층의 세계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⑤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을 통해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6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럽인들에게 쫓겨 강제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했던 케냐의 마사이 족은 새로운 정착지에 원래 살던 곳의 지명을 그대로 붙였다. 이와 비슷하게 유럽인들 역시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유럽의 지명들을 붙였다. 그들은 왜 새로운 곳에 예전의 지명을 붙였을까? 그것은 '공간'을 '장소'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간이 머릿속에서 기하학적으로 ㉠측량하고 재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공간은 인간이 활동하는 배경으로만 여겨지거나 인간의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각각의 공간들은 다른 공간들과 구별되는 자연적·인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으로 ㉡구성된 곳을 장소라고 한다. 공간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개념이라면, 장소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즉 장소는 주관적이고 개성적이며 독특한 것을 담고 있는 곳이다. 인간은 일상생활 속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경험하고, 이를 해석하며, 의미를 ㉢분여한다. 이러한 일상적 경험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이 인간의 감정이 이입된 상징적 '장소'로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가로수 길이 그곳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공간'이지만, 헤어진 연인과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추억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장소는 그곳의 실제적인 쓰임새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이는 자신들의 장소를 파괴하려는 외부의 힘에 ㉣대항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또 어떤 장소를 동경하거나 향수병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 또는 특히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장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장소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충만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며,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심오하고도 복잡한 곳이 바로 장소라는 것이다.

이렇게 장소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안정감을 주고 정체성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장소를 경험하고, 창조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들이 사라지고 있는 탓에 ㉥몰장소성(沒場所性)이 확산되고 있다. 즉 장소가 지닌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징적인 장소들을 훼손하는 현상과 규격화된 경관 만들기 현상이 그것인데 이런 몰장소화는 인간의 정체성을 혼드는 일이다. 몰장소성은 결국 뿌리를 잘라내고,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구체적 장소를 개념적 공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36. 마사이 족과 유럽인들이 새로운 곳에 예전의 지명을 붙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②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이다.
- ③ 새로운 곳에 대한 낯섬을 덜기 위해서이다.
- ④ 새로 정착한 곳에서 빨리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 ⑤ 자신들을 쫓아낸 이들에게 저항감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37.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오스트레일리아의 중앙에는 울루루(Uluru)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단일 바위가 있다. 울루루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관광객들은 원하면 이 바위에 올라가 볼 수도 있는데, 등반로 입구에 가면 다음과 같은 팻말들이 붙어 있다.

울루루에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세계 불거나 비가 오면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죽거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울루루 국립공원관리공단

당신들은 이 바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바위가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루루가 보호되고 존경받기를 바라며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울루루 원주민

- ① 울루루에 가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울루루는 '공간'일 것이다.
- ② 울루루에 관광객들이 등반하지 않기를 바라는 원주민에게 울루루는 '장소'일 것이다.
- ③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울루루에 도착한 원주민에게 울루루는 '장소'일 것이다.
- ④ 울루루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다친 기억이 남은 관광객에게 울루루는 '공간'일 것이다.
- ⑤ 자연 현상을 이유로 울루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는 울루루가 '장소'일 것이다.

38. <보기>에서 ㉠이 드러난 사례가 아닌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 ○○시는 △△동을 한옥 보존 지구로 지정하였다.
 ㉡ ○○시는 간판의 모양과 규격, 디자인을 통일시켰다.
 ㉢ ○○시는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시에 통합되었다.
 ㉣ ○○시는 특정 거리에 있는 옛 건물의 외관과 틀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현대식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9. 문맥상 ㉠~㉣를 바꿔 쓸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헤아리고 ② ㉡: 이루어진 ③ ㉢: 붙인다
- ④ ㉣: 맞서는 ⑤ ㉣: 가득찬

[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 황만근이 새벽에 경운기를 타고 나가서 다음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민씨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민씨는 이장이 쫓겨간 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쫓겨간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궐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냐.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테서 술 처먹고 주질러앉았을 끼라. 백 텃길을 강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방침이 그렇다 카이. 강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이를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 이장님부터 술선수법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매나 바쁜 사람인데 강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강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이고 온 사람도 밧 없더마. 소리마 밧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강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캐이맹구로 썩 썩 달리는데 받치만 우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썩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싸. 누구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씨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야 말았다.
 “㉣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이 자숙이 뉘 앞에서 눈까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뽁뽁 질러썩노. ㉤ 도지에서 쫓딱 망해가이고 귀농을 했시모 압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줄까 말까 한데, 뭐라고? 내가 만그이 이미냐, 애비냐. 나이 오십 다 된 기 어테를 가든 동 오든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사리 끌고 따라다니니까?”

[중략 부분 줄거리 - 황만근이 실종되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불편해 한다. 유복자로 여덟 달만에 태어난 황만근은 지능이 모자라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마을에서 반편이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마을의 온갖 굶은일을 도맡아 하는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살아왔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구관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스테인리스 물잔이 두어 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잔을 들어 마시고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인 듯했다.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민씨에게는 좀 빠른 듯했지만.

“그래서 우리 동네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거들랑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소 앞까지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기행동지침이라. 그래가지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경운기로 길기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라.”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찌나요?”
민씨가 물었다.
“농사짓는 사람이 경운기도 없다 하마 농사꾼이 아니지컬. 그랜제 민씨는 농사짓는 기 아이라. 비니루하우스 안에 꽃 밭 송이 심가놓고 우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어디 고장 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무안해진 민씨는 둘러보며 물었다. 새마을지도자인 황철석이 대답했다.

“말이 그렇다는 기지, 민소*까지는 경운기를 끌고 가든동 버스를 타고 가든동 하고, 그 답에는 경운기를 같이 타마 되지, 까이거. 그란테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이민서 왜 자꾸 농민 궐기대회에 나갈라꼬 캐싸.”
“아아,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또래인 황학수가 말을 이어받았다.
“농사를 지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아이고, 그라마 우리를 다 합치기이고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농협에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려 다니는 사람이 두셋 되었다.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 민소 : 면소, 면사무소의 사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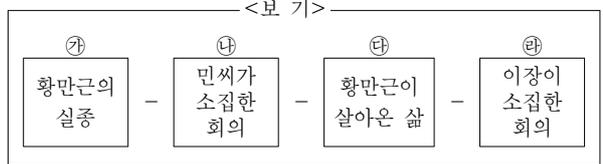
4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의 행위를 과장하여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구어체 사투리를 구사하여 작품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섬세한 인물 묘사를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장면 변화에 따라 서술 시점을 달리 해 입체감을 주고 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이장’은 방침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② ㉡ : ‘민씨’는 상식적인 이치를 들어 ‘이장’의 잘못을 따지고 있다.
- ③ ㉢ : ‘이장’은 당시의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있다.
- ④ ㉣ : ‘민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장’의 태도에 분노해서 흥분하고 있다.
- ⑤ ㉣ : ‘이장’은 경제적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열세를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

42. 위 글의 내용 흐름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간상으로 ㉣과 ㉡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 ② ㉡와 ㉣에 드러나는 회의 분위기는 동일하다.
- ③ ㉡와 ㉣를 통해 ㉠의 정황을 알 수 있다.
- ④ ㉡에 요약된 내용이 ㉡와 ㉣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⑤ ㉣를 개회한 이유는 ㉡에서 해결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투쟁 방침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경운기를 타고 농민궐기대회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결국 경운기 사고로 죽은 황만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 속에서 민씨는 궐기대회 전날 밤 황만근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된다 카이.” / “기계화영농 카더이 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밋이나 되나. 경운기, 트랙터, 콤파인, 이앙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빚으로 산 기라. 농사지뵈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 없다.” / “그런 기 다 쌀 값에 언차진다. 언차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살 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카는데 둘 다 안 했으마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멧탕구리로 만든다.” ……

농민으로서 진솔한 삶을 살아 온 황만근의 안타까운 죽음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 ① 마을 사람들에게 반편이로 취급받던 황만근이 농민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힘겨운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농 정책이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원칙을 지키다 죽은 황만근의 모습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 ④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를 사느라 빚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실상을 그리고 있다.
- ⑤ 황만근의 희생으로 마을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44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나의 언어기호 즉,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단어를 다의어(多義語)라 한다. 가령 ‘다리[脚]’는 동물의 하체 부분을 가리키지만 ‘책상 다리’나 ‘지겟다리’에서처럼 물체의 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때 ‘다리’는 다의어이며, 이 ‘다리’가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의 관계를 다의 관계(多義關係)라 한다.

다의어는, 소리가 같지만 서로 다른 단어로 구분하는 동음이 의어와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강(江)이나 냇물에 놓이는 시설물인 ‘다리[橋]’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와 소리는 같지만 별개의 단어인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로 구별하여 별도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상 다리’나 ‘지겟다리’의 ‘다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를 설명하는 ‘다리’의 하위 항목으로 삼아, 같은 단어가 되 의미가 좀 갈린 것이라 해석한다. 대부분의 국어 사전에서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는 ‘다리¹[脚, leg]’, ‘다리²[橋, bridge]’와 같은 방식으로, ‘다리’의 다의(多義) 관계는 ‘①, ②, ③ ...’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여 ① 동물의 다리, ② 물체의 다리 등과 같이 하위항목에서 뜻을 풀이한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의미의 유사성(類似性)을 들 수 있다. ‘책상 다리’의 ‘다리’는 사람의 다리와 의미상으로 공통된 속성을 가진다. 책상 전체를 사람의 몸으로 쳤을 때 그 하체 부분에 속한다는 속성이 그것이다. 이것은 ‘지겟다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강의 ‘다리’는 어떤 전체의 하체 부분이라는 속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구별하여 ‘다리’의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코’를 들 수 있다. ‘비선코’와 ‘그물코’의 ‘코’는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신체 기관으로서의 ‘코’[鼻, nose]와 어떤 의미 관계일까? 비선 앞쪽 끝에 뾰족하게 올라온 부분을 뜻하는 ‘비선코’의 ‘코’는 물체의 중앙에 솟아있다는 점에서 신체 기관으로서의 ‘코’와 형태의 유사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때문에 ‘코’에서 의미가 갈린 다의관계로 보고 ‘코’의 하위 항목으로 풀이한다. 하지만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 등의 눈마다의 매듭을 뜻하는 ‘그물코’의 ‘코’는 어떨까? ‘코’와 형태나 기능 등에서 유사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소리는 같지만 서로 다른 단어로 보고 ‘코²[stitch]’로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기관인 ‘코’와 ‘비선코’의 ‘코’는 다의 관계라고, ‘그물코’의 ‘코’는 동음이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의미의 유사성이라는 기준이 늘 선명하고 객관적일 수 없어 두 의미의 관계가 ‘동음이의’의 관계인지 ‘다의’의 관계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이때는 단어의 어원(語源)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어원적으로 같았던 단어이면 현재 의미가 다소 멀더라도 한 단어의 다의 관계로 보고, 어원적으로 다른 단어는 별개 단어의 동음이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다.

44. 위 글을 바탕으로 ‘다의어’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 ~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보 기>

하나의 단어가 (㉠)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의미가 (㉡) 속성에 기반하여 서로 (㉢) 관계에 있을 때, ‘다의어’라고 볼 수 있다.

- | | | | |
|---|-------|-----|------|
| | ㉠ | ㉡ | ㉢ |
| ① | 단일한 | 구별된 | 보완적인 |
| ② | 둘 이상의 | 구별된 | 유사한 |
| ③ | 단일한 | 공통된 | 보완적인 |
| ④ | 둘 이상의 | 공통된 | 유사한 |
| ⑤ | 둘 이상의 | 구별된 | 보완적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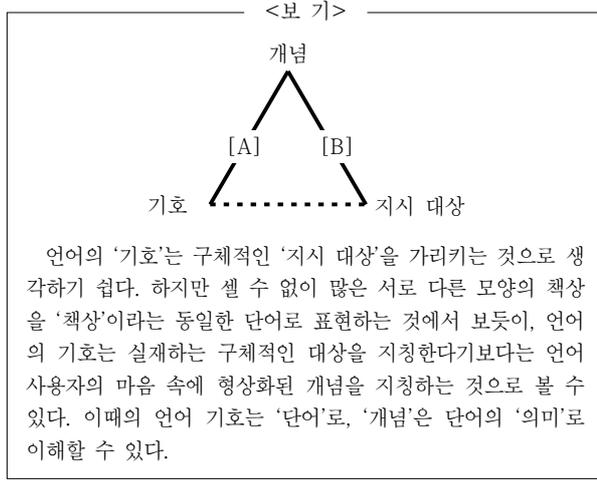
4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을 밑줄 친 단어의 의미 관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ㄱ. 밥을 달게 먹고 잠을 푹 잤다.
 ㄴ. 그는 불 속에서 빨강계 단 인두를 꺼내 들었다.
 ㄷ. 선생님의 조언을 달게 받아들였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ㄹ. 혈관마다 일시에 더운 피가 끓어올라 얼굴이 화끈 달았다.
 ㅁ. 경기가 3분밖에 남지 않자 그는 애가 달아 어쩔 줄 몰라 했다.

- | | | | |
|---|----------------|---|----------------|
| ① | ㄱ, ㄴ / ㄷ, ㄹ, ㅁ | ② | ㄱ, ㄷ / ㄴ, ㄹ, ㅁ |
| ③ | ㄱ, ㅁ / ㄴ, ㄷ, ㄹ | ④ | ㄴ, ㄷ / ㄱ, ㄹ, ㅁ |
| ⑤ | ㄴ, ㄹ / ㄱ, ㄷ, ㅁ | | |

46.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나의 다의어에 연결된 [A]의 개수는 여러 개가 된다.
- ② 하나의 개념에 연결된 다수의 [A]는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③ 하나의 단어에 연결된 [A]의 개수가 많을수록 의미는 단일해진다.
- ④ 하나의 개념에 연결된 [A]와 [B]의 개수가 동일할 때 다의어가 된다.
- ⑤ 하나의 개념에 연결된 [B]가 많을수록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유사성은 높아지게 된다.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중반 인쇄공인 해리슨은 활자를 세척하던 중 에테르가 증발하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데 착안하여, 이를 냉매로 한 냉장고를 개발하였다. 냉장고는 이처럼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체가 되면서 주위로부터 열을 빼앗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반대로 기체 상태의 냉매가 다시 액체로 바뀔 때는 열을 방출한다. 냉장고 뒤에 있는 파이프들은 이 열을 식히는 장치이다. 그래서 냉장고에는 냉매와 파이프, 그리고 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에 일반 냉장고와는 달리 이런 장치가 없는 냉장고가 인기를 ㉠ 끌고 있다. 대신 이 냉장고에는 ‘열전반도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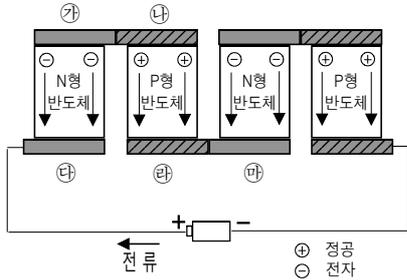
열전반도체는 전자(음전하)가 많은 N형 반도체와 정공(양전하)이 많은 P형 반도체를 붙여 만든 것이다. 열전반도체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전원의 양극(+)으로, P형 반도체에 있는 정공은 음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전자나 정공이 이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접합된 부분에서 열을 흡수한 다음에, 다른 접합 부분에서 열을 방출하게 된다. 그러면 한쪽 접합부는 차갑고, 다른 한쪽 접합부는 뜨겁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냉동을 열전 냉동이라 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연결한 후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두 금속의 접합부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흡수되는 ‘펠티에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옆의

그림에서처럼 열전반도체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N형 반도체의 전자는 ㉡ 부분에서 ㉢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자는 전류의 반대 방향인 전원의 양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P형 반도체에 있는 정공은 ㉣ 부분에서 ㉤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공은 전원의 음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접합부 ㉡와 ㉣는 열을 빼앗겨 차갑게 되는 반면에, 다른 접합부인 ㉤와 ㉥는 뜨겁게 된다.

한편 온도차를 이용하면 열전반도체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 열전반도체의 한쪽에 열을 가해 다른 쪽과 온도 차를 만들면 고온부에 있는 전자 및 정공은 저온부에 있는 것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전자와 정공은 온도가 낮은 저온부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전자의 이동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처럼 열전반도체를 이용하여 전류를 얻는 발전을 열전 발전이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전류는 온도차와 비례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금속을 연결한 후 접합부에 가열하면 전류가 발생하는 ‘제벡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펠티에 효과나 제벡 효과를 열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열전 현상은 1800년대에 발견되었으나 효율이 낮아 별로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열전반도체의 개발로 효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열전반도체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온도의 유지나 조절을 정확히 할 수 있다. 또한 열전반도체를 이용한 시스템은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품이 적어 작게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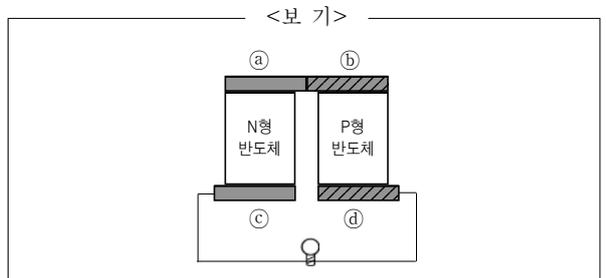


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4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일반 냉장고에는 냉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②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 ③ 펠티에 효과나 제벡 효과를 열전현상이라고 한다.
- ④ 열전 냉동은 열전반도체를 이용하여 냉동하는 방법이다.
- ⑤ 열전현상은 열전반도체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4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열전 발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와 ㉤에 열을 가하면 전류는 ‘㉢→㉡→㉣→㉤’로 흐른다.
- ② ㉤에 열을 가하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정공이 ㉤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 ③ a·b의 온도와 c·d의 온도의 차가 클수록 발생하는 전류도 커진다.
- ④ a에 열을 가하면 그 부근에 있는 N형 반도체의 전자가 c 부근에 있는 전자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 ⑤ d에 열을 가하면 그 부근에 있는 P형 반도체의 정공이 b 부근에 있는 정공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49. ‘펠티에 효과’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정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약보온기
- ②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작게 만든 휴대용 냉장고
- ③ 냉수와 온수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냉온 정수기
- ④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자동차 시트
- ⑤ 열을 전류로 바꾸어 온도를 표시해 주는 전자 온도계

50.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흥섭이는 자동차를 끌고 고향에 갔다.
- ② 경태는 긴 청바지를 질질 끌고 다녔다.
- ③ 명규는 상걸이를 끌고 식당에 들어갔다.
- ④ 승현이는 일을 끝내지 않고 미적미적 끌었다.
- ⑤ 덕주는 잘생긴 외모 때문에 남들의 눈길을 끌었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